

동성애와 문화

제3회: 동성애와 언론, 미디어

1. 들어가며

2014년 3월 26일, 주요 언론사들은 경찰이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 투약한 동성애자 10명을 입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들을 입건한 종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도심 한복판 아파트서 마약파티를 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 “피의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이며 이 중에는 트랜스젠더 2명도 함께 있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모두 성소수자임을 명시했다. 이에 주요 언론사들도 경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동성애자들이 마약범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를 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이라고 보도했으며, MBN은 “도심 아파트에서 주말마다 마약파티를 벌인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집을 마치 클럽처럼 꾸며 환각 파티를 즐겼습니다.”라고 보도했다. JTBC 역시 TV뉴스를 통해 ‘동성애

자 집단 마약 파티... 동물 마취제까지 투약’이라고 보도했으며, MBC TV도 마찬가지로 ‘도심 아파트서 집단 마약파티 동성애자들 검거’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내보냈다.

그런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동성애자 차별 및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이다. <친구사이>는 진정서에서 “종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를 이태원 게이클럽이라고 지정하였고 마약사용자들의 성적지향을 공개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종로경찰서가 ‘동성연애’라는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를 비하했고, ‘마약파티를 벌인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게이인권운동단체는 이 같은 진정의 당위성을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든 <인권보도준칙>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즉 종로 경찰서와 언론사들이 단순히 ‘마약사범 검거’ 등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해도 될 일을 ‘게이 클럽’이라는 특정 장소와 ‘피의자가 전원 동성애자’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과오를 범했고, 이는 <인권보도준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 같이 성소수자 단체들은 ‘마약’이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우선 제고하기 보다는, ‘동성애자’를 명시했다는 그 자체에만 더욱 집중하며 언론사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인권보도준칙>이 무엇인가? 이 보도준칙이 적용된 이후 동성애 관련 보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가? 과연 이 보도준칙이 무엇이기애 다수 언론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쉽사리 보도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맞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동성애 관련 영화나 드라마 등의 언론평가는 어떠한가? 늘어가는 동성애 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과연 언론은 ‘인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시각의 시사 평을 내놓을 수 있을까? 행여 이 같은 수용적 풍토가 더 많은 동성애 관련 콘텐츠 양산의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 같은 동성애 콘텐츠들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번 3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인권보도준칙’과 ‘동성애 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2. 인권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9월 23일 제정하였고, 2014년 12월 16일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으로 시작된다.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언급한 세부 조항 및 요강 매뉴얼을 살펴보자.

1) 성적 소수자 관련 조항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이렇듯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 ‘보도 대상자의 성적체성 언급,’ ‘동성애의 질병 가능성 및 에이즈 연관성’ 등에 대해 보도를 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에 따른 언론 풍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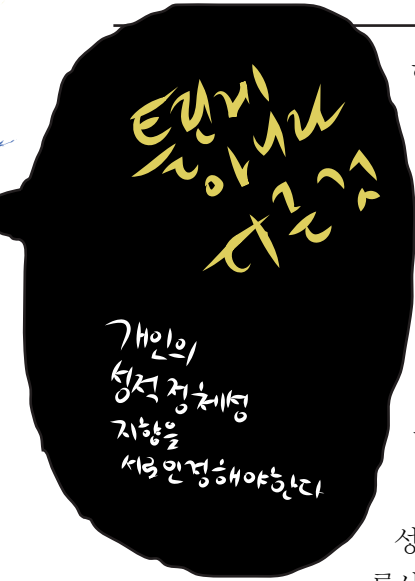
2018년 7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찬반논란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퀴어문화축제에 앞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의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의 반대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축제 자체를 반대 한다기보다는, 지난 여러 해의 전례를 봤을 때 그 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외설적이고 특히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선정적인 문구나 복장, 그리고 노골적인 퍼포먼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정작 언론의 보도 내용은 다수 국민의 의견과 성소수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기 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의식한 탓인지 대부분 언론이 축제를 미화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MBC뉴스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JTBC뉴스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 지향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이번 퍼레이드에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당신’들의 얼굴로 가득했다”등 대부분이 축제를 옹호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애를 썼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뉴스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자 호소한 축제”라고 밝히는가 하면,

10월 25일에 열린 인천퀴어축제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축제를 반대하는 집단의 시위 때문에) 70%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84%가 ‘급성스트레스 장애’, 6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예측된다”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가 사회적 관용도가 낮은 상태이고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 반대 인식이 높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성소수자만 옹호하는 편향된 보도를 내보냈다. 또한, 2018년 7월 19일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1만 5천명’인데, 경향신문과 SBS는 각각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이라고만 보도해, 소수자 축제의 참가자의 수를 늘려 보도하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현상”을 지적했다.

2014년 8월 14일, ‘한국교회언론회’가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권보도준칙> 개정 후, 동성애 지지보도가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에 보도된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동성애에 대한 보도는 총 1,015건이며, ‘동성애 사실보도’가 130건, ‘동성애를 지지하는 보도’가 726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도’가 159건으로 지지보도가 월등





히 많았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연관된 부정적인 보도를 막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동성애 지지 보도 비율이 51.75%, 그 이후에는 77.25%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기간 중 대다수 국민의 '동성애 우려' 입장을 꾸준히 대변한 언론사는 '국민일보'로서 이 매체의 동성애 관련 전체 보도 중 96.6%에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과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동성애 지지'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는 '한겨레'로서 전체 동성애 관련 보도의 96.3%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도의 93%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 같은 보도의 기조는 2013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윤화의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다만 <인권보도준칙> 시행 이전 20년간의 연구결과로서 '국민일보'가 '긍정 18.2% / 중립 21.8% / 부정 60%', 그리고 '한겨레'가 '긍정 67% / 중립 14.9% / 부정 18.1%'로 그 격차 폭은 다소 줄어든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수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진정한 수용과 존중은 그들에 대해 무조건 덮어두고 미화한다고 해결되어 질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성소수자 정책이 매우 발달한 유럽국가들 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마저도 에이즈 감염 등을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권'과 '보건'은 별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를 동성애와 연관 지을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언론들마저도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사안만큼은 중립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새로운 <인권보도준칙>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3. 동성애 관련 미디어 콘텐츠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된 계기는 우호적인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매년 한국퀴어영화제를 열어 작품작을 공모하고 해마다 새롭게 선정된 국내 작품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제18회를 맞이한 한국퀴어영화제는 2018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총무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4개국에 참가하고 72개 작품이 상영되는 등 규모면에서도 커다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성애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소식을 접하는 많은 대중들은 여전히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콘텐츠를 통해 여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보다 냉정하게 동성애 관련 콘텐츠의 현주소를 파악해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 영화와 드라마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 들을 조사한 뒤 목록을 작성해보았다. 동성애를 주된 소재로 삼았거나,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 용이 담긴 작품도 포함하였다.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동성애 관련 영화 및 드라마 콘텐츠 의 제작 빈도와 소재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았다(TV토크쇼, 예능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등의 기타 방송 콘텐츠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작년도	제목	구분	등급	내용요약
1996	내일로 흐르는 강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1999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여고생 동성애와 공포영화 소재를 혼합한 영화
1999	슬픈유혹	TV 드라마 (KBS)	-	동성애를 소재로 다뤄 2회로 나눠 방송된 단막 드라마
2001	와니와 준하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01	번지 점프를 하다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남자 교사와 남자 학생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그린 영화
2002	로드무비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두 남자 주인공의 애정과 그 중 한 남자에게 끌린 다른 한 여자와의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
2003	불어라 봄바람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04	S 다이어리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04	순흔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04	동백꽃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05	왕의남자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영 화로 퀴어적 요소가 담긴.
2005	용서받지 못한 자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2006	후회하지 않아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06	천하장사 마돈나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담긴 영화
2007	가면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와 트랜스젠더 소재를 담은 영화
2007	굿바이데이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07	엽서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08	소년, 소년을 만나다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소재 영화, 김조광수 감독 본인의 학창 시절 이야기
2008	뜨거운 것이 좋아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08	플라토닉 편지 바나나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08	쌍화점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수위 높은 동성애 장면이 담긴 흥행영화
2008	서양골동양과점 앤티크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담긴 영화
2009	친구 사이?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본격적인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09	헬로우 마이 러브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두 남자 동성애자와 한 여자와의 삼각 관계를 그린 영화
2010	종로의 기적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실제 4명의 게이를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2010	인생은 아름다워	TV 드라마 (SBS)	-	총 63부작, 공중파 드라마로선 이례적으로 동성애를 다룸
2010	개인의 취향	TV 드라마 (MBC)	-	16부작, 게이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김
2010	사랑은 100℃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청각 장애인이 사우나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접하는 이야기
2011	알이씨REC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5년차 게이커플의 추억을 담은 현실적인 퀴어 영화
2011	출타동시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힘겹게 살아가는 탈북 소년과 모델이 직업인 게이 소년의 만남
2011	창피해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여자 미대 교수와 모델 여학생의 레즈비언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1	완벽한 남자에겐 남자가 있다	단편영화	-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1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	TV 드라마 (KBS)	-	여성 동성애를 정면으로 다룬 단편 드라마
2012	졸업 여행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12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의 위장 결혼을 코믹하게 다룬 영화
2012	남쪽으로 간다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군 생활을 같이 한 선후임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게이 소재 영화
2012	백야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와 동성애자 폭력을 다룬 영화
2012	좋은 사람 생기면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2	지난 여름, 갑자기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남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사랑을 다룬 게이 소재 영화

2012	댄싱퀸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12	그대 잠든 사이	단편영화	-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2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3	퀴어영화 20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한 소년의 자전적 드라마,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3	하룻밤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3	하이힐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영화
2013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여러 주인공 중 한 명이 동성애자로 출연
2013	당신이 몰랐던 것들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야간비행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고교 우등생과 폭력서클 학생의 관계를 그린 게이 소재 영화
2014	원나잇 온리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두 개의 에피소드 / 고교생 게이와 성인 게이의 두 이야기
2014	쌈[some]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아! 개운해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4	그린라이트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여름밤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애타는 마음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택시기사와 20대 게이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2014	퀴어영화 캔디: 우리가 사랑한 소년의 이름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게이 소년의 이야기
2014	끝말잇기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하프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퀴어적 소재를 담은 영화
2015	퀴어영화 나비: 어른들의 일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남자 주인공이 호스트바에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2015	수상한 언니들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15	첫사랑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소재를 담은 영화
2015	마이 페어 웨딩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본인의 실제 동성결혼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2015	더러버	TV 드라마 (M.net)	청소년 관람 불가	총 14화로 구성된 네 커플의 동거 드라마, 한 커플이 게이 커플
2015	대세는 백합	웹 드라마 (네이버TV)	15세 이상 일부 19금	8부작 웹 드라마, 두 여고생의 동성애를 그린 청소년 드라마

2015	FMSM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5	선암여고 탐정단	TV 드라마 (JTBC)	-	청소년 드라마로써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으로 논란이 됨
2015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남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2015	오픈	단편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제16회 한국퀴어영화제 상영
2016	어느 여름날 밤에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두 인민군의 동성애, 탈북 후 새 남자 친구와 뒤늦게 탈북한 과거 연인사이의 갈등
2016	아가씨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16	연애담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16	이별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	단편영화	-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2016	형이 돌아왔다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6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퀴어적 요소가 상당수 포함된 범피 액션 영화
2016	죽여주는 여자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트랜스젠더가 출연하는 영화
2016	안투라지	TV 드라마 (tvN)	-	퀴어적 요소가 일부 포함된 16부작 드라마
2017	문영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양성애자 소재를 담은 영화
2017	우리 정말 헤어졌을까	단편영화	-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2017	뚝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7	돌아가는 길	단편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7	기울어진 여름	단편영화	-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17	메소드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배우와 아이돌 스타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2017	꿈의 제인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018	환절기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의 시각을 담은 영화
2018	퀴어영화 뷰티풀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2018	어느 일요일	웹영화	-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2018	열대야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제7회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핑크머니상을 수상한 게이 영화

우선 년도 별 제작 빈도를 살펴보면,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9편으로 연간 평균 1.8편 제작.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6편으로 연간 평균 3.2편 제작.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39편으로 연간 평균 7.8편 제작.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역시 연간 평균 7.5편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권보도준칙>이 개정된 2011년을 기점으로 동성애 콘텐츠 제작 빈도가 급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많은 제작자들이 동성애 코드를 과감하고 거침없이 영상에 담아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동성애 코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동성 간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다룬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이어지는 4회, 5회에서 공연문화, 대중음악 속 동성애를 모두 다룬 뒤 종합적으로 결론짓도록 하겠다.

위 미디어 목록에도 다수 담겨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공중파 TV 드라마에서조차 동성애 장면을 내보내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많다. 그 중 한 예로 2015년에 JTBC에서 방영한 '선암여고 탐정단'을 들 수 있는데, 15세 청소년드라마에서 제11회와 12회, 2회에 걸쳐 '여고생간 키스신 및 포옹 장면'을 내보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최근 방송심의위원회, 동성애 키스신 제재 검토, 당신의 의견은?"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가자의 88%(6만9861명)가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로 방송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고, 단지 11%(9019명)만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인정 차원에서 제재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접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먼저 걱정하고 마음 졸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평범한 다수 시민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언론과 미디어는 오히려 뒤도 보지 않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것인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권고로 동성애 이슈에 대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성애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었다가 자칫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인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미화하는 보도와 시사평을 내놓는 것이 속 편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권보도준칙>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비판의 관용'이라는 특권이 주어져 더 많은 동성애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 같은 필자의 의견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동성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역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동성애 관련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에..., 아직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미화'된 면만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여, 자기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또한 이 나라 언론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막중한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MEDIA

